

KIA '타이어드'

(Tired: '피곤함'을 뜻하는 영어)

팬들도 피곤하다

26일까지 42연전 고난의 일정 투수 휴식시간 적어 더욱 부진

실력있는 KIA, 운도 없다. 생각만큼 풀리지 않고 있는 올 시즌 '살인 일정'도 KIA의 발목을 잡고 있다. KIA는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넥센과 경기를 치르면서 전체 128경기 중 63경기를 소화했다. 9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경기다.

주말 3연전이 끝나면 휴식기를 갖는 두산이 61경기로 최다 경기 2위. 주말에 경기가 없는 SK가 60경기, NC도 60경기를 치렀다. 경기수가 가장 적은 한화(57경기)와 6경기 차다.

쉽없는 질주다. 지금까지 우천 취소된 경기는 단 1경기에 불과하다. 오던 비도 그치면서 선물같은 휴식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 휴식기도 비껴가는 일정이다. KIA는 지난 5월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휴식기 없이 직진을 해야 한다. 42연전의 고행길, 설상가상 대진운동도 없다.

42연전 기간 동안 일정을 보면 휴식기 이후나 휴식기를 앞둔 팀과의 시리즈가 모두 6차례에 이른다.

5월20일부터 진행된 홈경기에서는 휴식기를 보냈던 LG와 상대했다. 다음 일정이었던 주말 원정길에서는 휴식기를 앞두고 있던 롯데를 만났다.

6월 첫째 주 일정도 험난했다. 주중 대구에서 만난 삼성과 주말 잠실에서 만난 LG가 모두 휴식기를 보낸 뒤 최상의 전력으로 그라운드에 올랐다.

이번에 안방에서 대결한 넥센도 휴식기를 보내고 체력을 충전한 상태, 주말 상대인 두산은 이번 3연전이 끝나면 휴식기에 들어간다. 잔인한 일정이다.

안 그래도 허약한 마운드, 일정 탓에 힘싸움에서 더 밀리는 모양새다. 휴식기를 보낸 팀은 전력 재 정비와 함께 원투펀치를 전면으로 앞세우고 시리즈를 치르게 된다. 휴식기가 기다리고 있는 팀은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총력전을 하게 된다. 42연전에 불리한 대진까지 KIA에게는 답답한 전반기다.

문제는 7월 일정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비가 잦은 7월에는 강제 휴업 사태가 예상된다. 17일 퓨처스 올스타전에 이어 18일 올스타전이 열리면서 프로야구는 올스타 브레이크에 돌입한다. 7월 방학에 앞서 치러지는 2연전, KIA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7월14일(월)부터 7월21일(월)까지 휴업상태다. 비까지 겹치면 KIA의 휴식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5·6월 빠듯한 일정에 고생을 했다면, 7월에는 비어버리는 일정 탓에 컨디션 난조라는 적을 만날 수도 있다.

이래저래 고민 많은 KIA의 2014시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턴 커쇼(22)가 19일(한국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동안 완벽한 피칭을 펼치며 생애 첫 노히트노런을 달성,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덕아웃 말 말 말 **친정 은 소사 "사랑해요"**

▲"진짜 가버리던 대요." 입담으로 유명한 나지완이 19일 덕아웃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어제 김영민의 몸쪽 공때 점포를 하는 것 봤나?"가 시작이었다. 지난 주말 머리에 공을 맞은 뒤 몸쪽에 공이 오면 깜짝 놀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자연히 당시 공을 던진 옥스프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다음날 롯데 라커룸 쪽에서 선수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나지완은 "옥스프링이 멀리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면서 왔다. 장난을 친다고 가버리라고 했더니 진짜 그냥 가버렸다. 나는 생각해서 장난을 친 건데"라면서 껄껄 웃었다.

"유민은 내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한 10일 정도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며 만담을 이어갔다. 사구 이후 3경기에서 성적은 7타수 1안타. 뜨거웠던 기세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사구 후유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지완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올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다. 아직 몸쪽 공에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사구의 영향은 크지 않다. 안타는 못치고 있지만 타점도 하고 출루도 하고 있다. 팬들이 질 것이다"고 밝혔다.

▲"사랑해요. 여러분." 소사에게는 즐거운 친정방문이었다. 앞선 4차례의 등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소사는 지난 17일 친정팀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며 한숨 돌렸다. 새 구장도 소사에게는 즐거움이였다.

KIA 팬들에게 한마디를 부탁받은 소사는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한국말로 "사랑



하트 날리는 넥센 투수 소사.

해요. 여러분"이라고 외쳤다. 엄지 손가락도 치켜들었다. 소사는 "새 구장이 정말 좋다. 우리나라 최고의 구장인 것 같다"고 좋아했다. KIA 타격에 대해서도 엄지 손가락을 치켜든 소사. 새 팀에서 한국 생활을 이어가게 돼서 기분 소사에게도 아쉬움은 있다.

유난한 굴비 사랑으로 유명했던 소사. 소사는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굴비를 많이 먹었는데, 서울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곳 굴비가 최고였다"고 아쉬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23일 '물방망이' 샌디에이고 상대로 9승 도전

2승9패 에릭 스틸츠와 맞대결 팀 타율 1할대 최하위팀 '수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최하위(30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시즌 9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 10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전에 선발로 나선다. MLB닷컴은 19일(한국시간) 류현진을 23일 다저스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지난 17일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1위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1실점의 호투로 시즌 8승(3패)째를 수확한 류현진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5일 휴식 후 등판' 일정으로 샌디에이고와 맞선다. 류현진은 지난해와 올해 5일 휴식 후 등판한 11경기에서 9승 1패 평균자책점 1.99를 기록했다. 4일을 쉬고 나선 경기(21경기 8승 7패 평균자책점 3.91)나 6일 이상 쉬었을 때(11경기 5승 3패 평균자책점 2.60)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좋다.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자신감도 넘친다.

류현진은 4월 1일 팻파크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해에는 다저스타디움에서 한 차례(9월 1일) 만나 6.1이닝 8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2013년 팀 타율 0.245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 23위에 그쳤던 샌디에이고는 올해 타선이 더 침묵하고 있다. 18일까지 0.214로 29위인 뉴욕 메츠(0.231)보다도 1푼7리나 낮은 타율을 기록 중이다.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한 타자가 단 한 명도 없고, 6개의 홈런을 친 야스마니 그랜달·체이스 해들리·개리 스미스가 팀 내 홈런 1위를 달릴 정도로 장타력을 갖춘 타자도 없다.

상대 선발로 내정된 왼손 에릭 스틸츠는 2

승 9패 평균자책점 5.76으로 부진하다. 다저스 타선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투수다.

류현진은 5일 휴식을 통해 편안한 몸 상태로, 가장 수월한 상대와 맞설 수 있다. 공교롭게 류현진 등판 1시간 10분 전인 23일 오전 4시에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레그리 베이라하우 주경기장에서 알제리와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예선 2차전을 펼친다.

한국 스포츠헤들은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승리와 류현진의 시즌 9승 달성을 기대하며 23일 오전을 맞이하게 됐다.

연합뉴스

안방서만 이기던 광주FC, 원정 첫 승 도전

K리그 챌린지 15라운드 22일 수원FC와 대결



프로축구 광주 FC가 '원정 첫 승'을 위해 수원FC를 상대로 원정 승리를 노린다. 22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 FC와 수원 FC의 경기는 챌린지리그 2014시즌 15라운드 경기다. 올

시즌 일정의 40% 가량을 소화했지만 광주에게 아직 원정 승이 없다.

앞선 원정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마지막 5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번번이 무승부를 안고 광주로 돌아오곤 했다. 승리가 목마른 8위 광주. 점점 상위권 팀과의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3승5무6패(승점 14)에 그치면서 1위 대전(11승2무1패·승점 35)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됐다. 2위 대구(6승2무4패·승점 22)도 멀리 달아나 있다.

광주의 위기를 풀기 위한 답은 수원원정 2연승이다. 앞선 맞대결에서 광주는 캡틴이언의 결승골로 승점 3점을 챙겼다. 이 승리로 3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도 부상이 겹치면서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수원과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광주는 다시 한번 반동의 계기를 찾는다. 광주는 올 시즌 경기를 주도하고도 공수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빈틈을

보여왔다. 공격에서는 상대의 추격을 뿌리칠 결정력이, 수비에서는 승리를 지킬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공백이 있다. 이종민과 이찬동이 경고누적과 징계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다행히 공격진은 모두 부상에서 탈출하면서 움직임이 괜찮다.

수원도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주전 공격수인 박종찬도 경고누적으로 결장한다.

세밀한 패스와 과감한 슈팅으로 광주가 수원 공략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I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엘리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